

SUMMER

2012년 여름호 | 통권95호

보디 시크너

The Jaje hospit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s for an incurable disease prevention



아프고 힘든 환자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무애시의 이타행에 대해 수희 찬탄합니다.

석가족의 비구 달라이라마 2012년 3월 7일(달라이라마 친필 사인)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http://jungtoh.org>



능행스님과 함께 하는

35th 불교전문 호스피스 수행

Are you happy?.. So

“ᄃᆞᄂ ᄃᆞᄂ ᄃᆞᄂᄃᆞᄂ” 20

불교호스피스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Buddhist Hospice is Buddha Dharma

교육기간 2012년 7월 29일(일) ~ 8월 4일(토) / 6박 7일

교육대상 사부대중

교육정원 56명

교육비 65만원 (교재비 포함)
- 국민은행 713701-01-140961 (재)정토사관자재회

접수마감 2012년 7월 13일 도착


제출서류 교육지원서, 사진(3×4) 2매

접수방법 우편, 전화, 홈페이지, 방문

접수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전화 / 052-255-8521 팩스 / 052-264-0209
홈페이지/ www.jungtoh.org 통합검색 / 정토마을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아미타호스피스회

주 관 :  수행과 돌봄이 하나 된 행복공동체 ·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정토 마을 행복공동체 사부대중은 달라이라마 존자가 머무시는 인도의 법왕궁에서 달라이라마를 친견하고 자제병원 조감도에 수회 찬탄의 메시지를 축복받았다.

보디사트바 Bodhisattva
 보디 Bodhi는
 깨달음을 통해 윤회사슬을 벗고
 열반에 일은 상태를 말하며
 사트바 sattva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맑은 존재의
 상태를 말합니다.

- 04 **여는글** 유월의 노래 | 능행
- 06 **기획특집** 티벳 성자들의 메시지 | 편집부
- 09 **공덕의 향** 수거풍래
- 10 **선지식 초대**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 이길수
- 12 **능행스님의 꾸미**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상담 | 편집부
- 14 **영어로 만나는 법화경**
- 15 **만화로 만나는 뜨락 경책** | 최영순
- 16 **수행도량**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티벳 승원과 국제 저매결연 맺다 | 김경오
- 19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백금 귀고리를 하고 떠난 소녀 | 능행
- 22 **보디사트바 향기** 선재회 | 백현진
- 23 **스님들의 채공이야기** 머위 | 연호, 만옥
- 24 **아름다운 얼굴** 정토마을의 인정 열정 연호스님 | 편집부
- 26 **특별한 초대** 인생을 수행으로 노래하는 국민가수 현철 | 편집부
- 28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마음의 창문을 많이 만드세요 | 김여환
- 30 **아름다운 동행** 들꽃지기 봉사단 | 안미희
- 31 **명상 카툰** 웃을수록 웃을 일이 생깁니다 | 용정운
- 32 **호스피스병동 정토마을** 정토마을의 하루 | 이세정
- 34 **이야기가 있는 풍경** 하나 CPE, 내 삶의 청소 작업 | 이영희
- 36 **돌 정精** | 남정
- 37 **말풀이**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 민대식
- 38 **정토마을관자재회 소식**
- 40 **자제병원**
- 41 **정토마을**
- 42 **CPE 교육 안내**
- 43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안내**
- 44 **마하보디교육원 교육안내**
- 45 **아띠울 · 호스피스협회**
- 46 **정토마을 · 자제병원 한 생명 살림 함께 가꾸기**
- 47 **자제병원 함께 만들기**

· 발행처 정토사관자재회 · 발행일 2012년 6월 4일 · 발행 · 편집인 능행 · 등록 울산비01004 (2008. 4. 11.)
 · 기획위원 배성권 민대식 이길수 · 편집위원 남정 김경오 엄수현 안미희 백현진 · 사진 김종진 · 편집장수필
 · 정토마을 총무 정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17 / 전화 043)298-2258
 · 마하보디교육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 거리로 323-27 /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디자인 편집 맑은소리 맑은나라 전화 051)255-0263 / 팩스 051)255-0953
 · 기획 아띠울 전화 052)255-8520 / 팩스 052)264-0209 · 제작 정토사관자재회 |비매품



유월의 노래

능행 | 정토마을 자제병원 이사장

아카시아 꽃잎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 어느덧 여름이 오는 길목에 있나봅니다.

후원가족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며 건강한 삶이시길 염원하면서 유월에 준비하는 보디사트바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뻐하며 밝혀내는 진리의 빛, 거리마다 산천마다 형형색색 고운 빛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연등에 불을 밝혀 우주법계에 공양 올릴 때 항상 나와 나의 이웃이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아내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보시면 참 좋겠 죠.

연양과 청원에 있는 정토마을도 여러분들께 서 밝혀주신 고운 빛들이 연등에 담겨도량을 빛 으로 장엄하고 있는 오월입니다.

이곳 연양 '정토마을 자제병원'은 형체를 이 미 드러내었고, 이제는 다양한 내부 기능들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일구어 가시는 후원가족 여 러분들과 힘을 모아,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 받 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런지 숙고 해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건립하는 일도 참 쉽지가 않지만, 운

영에 있어서 적합하고 적절한 나눔의 묘를 모 색하는 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토마 을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의견 주시면 자제병 원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 다. 도움이 되는 의견 많이 주시고, 정토마을 후 원자로서 의료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정 토마을과 함께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통 해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 3분과 간호사 10명 그리고 보조간호사 약 20명 정도 요 양보호사 8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구성되는 과 정 또한 준비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여러분들께서 곁에 계시주시기에 더욱 힘 낼 수 있는 제가 있습니다.

길어가는 숲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생명의 푸르름에 충만하여 건강하고 밝은 삶이 되시기 를 기원합니다. 卍





티벳 성자들의 메시지

편집부

능행스님을 비롯해 총 9명의 비구니스님들과 19여명의 불자들이 티벳 라마들을 친견하고 법을 들으며 가피를 청하고 신심을 견고히 하는 순례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6박7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다람살라를 향해 가는 시간인 하루 반씩의 총 3일을 제외하면 사실 4일은 오롯이 성자들과 함께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멀리 보이는 남갈사원과 왕궁, 히밀타야의 설산이 우리 순례객을 반기어 맞이해주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이 신년법회 참석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와 있어 다람살라는 사람들로 성사를 이루는 서울의 명동을 방불케 하였다.

다람살라에 도착한 첫 날은 달리이라마 스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법회가 있었다. 스승을 위해 제자로서 기원을 담아 하는 기도의식

이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예정에 없던 관세음보살 관정의식을 거행한다고 하였다. 마치 우리 순례단을 위해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지는 환희로움에 모두가 환호하였다.

관세음 관정의식은 중생들에게 보리심의 씨앗을 심어주는 의식이자, 중생들 각자는 자신의 이기심을 중생을 향한 이타심으로 바꿀 수 있도록 수행하겠다고 보살계를 통해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과 약속을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새벽 다섯 시부터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지만 남갈사원은 이미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약 6~7시간정도 진행된 관정의식과 존자님의 법문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의식을 함께 하는 것이 놀라웠다.

관정의식이 끝난 후에는 청전스님 덕분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특별히 친견하고 단체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는 영광까지 더해지기도 하였다. 왕궁에서의 아주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존자님께서는 자제병원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도 기뻐하시며, 자제병원 조감도 칩장에 직접 서명까지 해 주시고, 능행스님을 비롯한 공동체 스님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다음으로 만난 분은 로체 린포체이다. 로체 린포체는 어린 나이부터 한국을 방문해 이미 한국불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링 린포체스님의 현생의 스승이기도 하다. 로체 린포체께서는 연세가 많이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수행하는 이들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지극히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다. 정토마을 소임자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기도 하였다. 만약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나 약을 먹으려 할 때 그들에게 평온한 음성으로 “당신이 이 음식을 먹으면 병이 더 악화되어 안 좋아질 텐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다.”라는 온유한 표현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 뿐만 아니라 임종하는 이들을 돌보며 수행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일일이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며 말씀해 주시는 자상한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다람살라를 떠나는 날은 네충스님의 신탁이 있다고 했다. 다람살라를 자주 드나들던 실크로드의 사장님조차 신탁을 경험하는 일은 처음이라며 경이로워 했다. 네충스님은 네충신을 신탁받은 스님을 말하며 네충신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수호하기 위해 도솔천으로부터 오신 신중의 한분으로서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 존자의 수호신이라고 한다. 네충스님은 우리 순례단을 기꺼이 친절하게 맞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호스피스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붓다께 가피를 청하는 기도로써 함께 해주시기도 하셨다.

신탁하는 곳에는 약 오백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신탁을 받을 때 한국 순례단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티벳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훈훈해지는 듯 했다.

신탁 후에 네충신은 네충스님을 통해 몽골의 불교와 불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정토마을 공동체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몽골인들에게 의약을 지원하고 교육과 농사



달라이라마



짓는 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스스로의 삶과 종교를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네충신의 메시지였다.

다람살라를 떠나 12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델리에 도착했다. 델리의 호텔로 링 린포체스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약 한 시간가량 담소를 나누며 저녁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다. 링 린포체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알고 있듯이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스승이셨던 린포체의 환생자라고 한다. 한국을 세 차례 방문하셨기에 한국 불자들은 어린 링 린포체스님을 기억하고 있다. 링 린포체스님은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장성하여 현재 델리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 하였다. 링 린포체 역시 고통받는 중생 속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보살심에 대해 칭송하시며 호스피스 수행이 보리심을 증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수행이 되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인도의 순례는 성자^{聖者} 친견 순례라고 할 만큼 온전히 린포체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짜여졌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에 이어서 네충스님의 신탁의식 참여, 로체 린포체와 링 린포체 친견 등 총 네 분의 성자를 친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사실 28명이 그분들을 친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실행한 무모한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잘 계획된 여행으로 그 네 분의 라미승들을 일시천리로 만나 뵈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네 분 성자들의 한결같은 말씀은 ‘보

리심의 증장 과 ‘공성의 지혜를 통한 이타심의 실천행’ 이었다.

다람살라를 떠나오는 차에 오르자 멀리 보이는 히말라야의 설산이 우리 일행이 탄 차를 배웅하며 오래도록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卍

水去風來 晒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 (미소)

-성수큰스님의 임종 계(臨終偈)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종단의 원로의원 성수 큰스님께서
4월 15일에 경남 양산 통도사 관음암에서 입적하셨습니다.
통도사에서는 19일 오전 10시 큰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통도사 주지스님은 큰스님의 다비식에 참석한 대중 스님들께 드릴 여비를 모아
(재)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정토마을 자제병원 건립에 2천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정토마을 공동체 스님들과 직원일동은
통도사 주지스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수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중생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는 곳에서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육조단경 법문을 신도도록 허락해 주신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네가 바로 부처인데 왜 중생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느냐?”

수불큰스님 | 범어사주지 · 안국선원장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선지
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가르침 받아라.

그렇게 장치되어진 곳에서도 만약 스스로 안 되거든 대선지식을 찾아봄
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육조스님 자신도 대선지식이지만, 그 당
시에 또 다른 선지식이 있음을 이걸 보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이것
을 알았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 당시에 오조스님도 살아계셨을지도
모르고 육조스님이 떠나고 난 뒤에도 오조스님께서 한 십 년 정도 더 살았
으니까. 아파 이 때는 오조스님은 이 세상에 안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조

스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육조스님만
 견성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 적에는. 또
 다른 사람도 견성하고 계셨겠지. 그러나 방편씀
 이 육조스님만 하나안 하나하는 것은 또 다른
 역량이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
 니예요.

이러한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이른
 바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여 견성토록
 하나니 일체 선법은 모두 선지식으로 인
 하여 능히 일어났느니라.

그런 선지식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과거 석가모니 이전의
 부처님께 칠보로 공양을 올린다하더라도, 일곱
 부처님 모두에게 날날의 공양을 올린다하더라
 도 눈앞의 선지식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만이야
 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을 능
 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선지식을 만나야
 지 눈 뜰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 말입니다. 그
 러니까 부처님 무시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부처님 가신지는 이미 오
 래 돼서 내가 직접 만나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불교 믿는다
 고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불교만 믿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견성 성불하는 데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불교만 믿으면 무

엇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불교의 노예지. 불
 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 만들려고 세상에 존
 재하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지만 부처님의 가르
 침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원
 토록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고, 또 부처님 스스
 로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내가
 바로 부처다. 그런데 왜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중
 생의 어리석은 허물을 뒤집어쓰고 그런 모습으
 로 살아가야만 되느냐?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는 금강반야경을 지송하고 그러지 않으면 네 스
 스로 네 마음을 깨닫도록 애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선지식을 찾아가서 그 선지식이 쓰는
 방편을 통해서 내가 온 몸으로 마음을 깨닫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
 니다. 이게 바로 권선이요, 능히 불사를 잘 짓도
 록 권선한다 이 말이에요 범문하는 것은 다 권선하
 는 것입니다. (녹취: 이길수) 卍

(수불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는 1년동안
 연재 될 예정이며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올 4월 1일 꽃비가 흠날리는 가운데
 상량식이 거행되던 날에도
 귀한 법문 주신 수불스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범어사 주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난 기공식과 상량식에 먼 길
 귀한 걸음 해주신 안국선원 도반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능행스님과 함께하는 치유와 상담

편집부

능행스님의 꾸띠 (<http://www.nhbkt.com/>)
(꾸띠는 '토굴'의 산스크리트어)

Q 스님 안녕하세요? 뵈는 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정토마을의 그 시절이 저에게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은... 스님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A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결정코 가질려고 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면 먼저 그 행복을 얻는 적합한 방법을 알아야 하겠지요? 그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타인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를 담고 있으면 나는 당연히 행복해 집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Q 스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일 주일 정도 식사를 못하시고 계시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어머니께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는 염불을, 아버지는 마지막에 소리도 안나오는 입으로 입모양만 따라하시고는 양손에 염주를 꼭 쥐시고 편안히 잠드신 것처럼 떠나셨습니다. 화장을 하여 뿌려드리려고 내려오는 동안 차안에서 가족들 모두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신 거겠죠? 그런데 임종 중에 배가 가장 늦게 식으셔서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뿌려드린 곳에 광명진언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제사도 가족들이 정성으로 49일동안 해드리려 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호스피스에 대한 배움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병원에서 고생하시면서 돌아가셨을 텐데 짧지만 한달 동안 아버지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아 가족들 모두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A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보내 주셨군요. 아버지의 몸에서 마지막 온기가 배 부분에서 사라진 것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보살님께서 좀 더 차분히 섬세하게 살펴보셨더라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식은 가슴부분에서 마지막 한 점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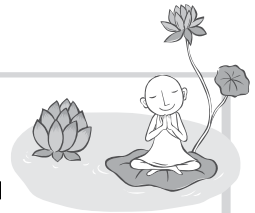
사람들의 의식은 우리 몸의 7개의 통로를 통해 이완될 수 있는데 배 가까이 있는 통로가 가슴 부분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아버지만을 위해 오롯한 공덕을 지어 드리면 다음 생을 받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Q 스님, 청안하시지요? 한 번 찾아뵈다 하면서도 자주 전화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아들 내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스님, 아기를 위한 기도문을 부탁드립니다.

A 보살님의 정성어린 기도공덕으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겠군요. 제가 기도문 만들어 보내드릴 터이니 며느님께 입태 중에 기도를 하도록 가르침 주세요. 아름답고 건강하며 총명한 자손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 기도 |

부모로 선택하기로 결정해준 아름다운 아기가야, 우리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 오기를 기다렸단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단다. 아기가야, 이제 우리가 부모 되고 자식이 되는 인연으로 한 몸이 되었구나. 우리는 너의 삶에 보호자이며 양육자로서 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피어날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주마. 헌신과 사랑으로 널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돌보는 부모가 되어줄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동행해 줄 거야. 전생에 경험한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태중에서 엄마의 맑은 사랑으로 치유되길... 새벽에 여명을 열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이 세상에 빛나는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야. 별빛 같이 아름다운 나의 아기가야. 마음을 다해 태중에서 잘 성장하여 너의 빛나는 불성과 함께 너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다해 너를 보호할 거야. 평안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한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는 반야심경을 매일 108번씩 독송하도록 도움 드리세요.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남을 축복합니다. 卍

상담과 치유를 받으실 분은 네이버검색 창
'능행스님의 꾸띠' 를 이용하세요!



All laws have form, nature, entity, force, action, cause, relation, effect, retribution, and their consistency from beginning to end.

이른바 모든 법의 이러한 모양[如是相], 이러한 성품[如是性], 이러한 본체[如是體], 이러한 작용[如是作], 이러한 원인[如是因], 이러한 연유[如是緣], 이러한 결과[如是果], 이러한 보응[如是報], 이러한 시작과 끝[如是本末]과 구경(究竟) 등이니라.

所謂諸法如是相 如是性 如是體 如是力 如是作 如是因 如是緣 如是果 如是報 如是本末究竟等

-묘법연화경 방편품 중에서-

※영어 법화경 출처 : 법화정사

경책

최영순 | 만화가



◎ 최영순

강릉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서 소설을 공부했다. 철들기 전에는 학교 대신 강릉 남대천하구의 역새밭에 누워 있거나 어두컴컴한 싸구려 극장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고, 철든 후엔 '자비암'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길 잃은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한 시절을 보냈다. 1999년부터 본격적인 만화 작업을 시작했다. <불교신문> <스포츠타임스> <굿데이>를 비롯한 여러 신문과 <현대모터> 등 사보에 만화를 연재했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티벳 승원과 국제 자매결연 맺다

티벳불교 논리연구소와 사미니승원 방문

김경오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간사

불교논리연구소 (Institute of Buddhist Dialectics)

“모든 진리는 붓다의 말씀이다”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일행들이 불빛조차 어두운 밤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달라이라마께서 법문을 설하신 남갈사원 안의 초입에 있는 단출한 2층 건물이었다. 강당의 문을 열기도 전에 뜨거운 기운이 전해져 왔는데 과연 들어서 보니 그 곳에는 우리 일행들이 차마 숨소리조차 다잡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앙의 불단 아래 130여 명의 학생들이 양 벽면을 등지고 앉은 모습이 마치 독수리 날개인 듯하였고, 강당의 맨 중심에는 덕 높으신 스승님들이 후학들과 함께 경전을 펼치고 앉아 경전을 소리 내어 읽으시는데 강당 전체가 마치 경 읽는 장단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는 양 보였다.

웅장하고도 엄숙한 붓다의 제자들께서 거룩한 법보시를 우리 일행에게 쏟아 주심을 느끼며,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고 어떤 이는 웃음을 짓고 어떤 이는 맑은 눈을 뜨고 호흡을 바로 하였다.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원장 능행스님은 연구소의 대덕 스님들과 함께 하시고 대학원의 팀장스님과 정토마을 공동체 어른스님은 한국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한 보시금과 공양물을 130여명의 학인스님에게 법을 갖춘 예배와 함께 올렸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매년 성적이 뛰어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노트북을 장학물품으로 계속 공양하고자 약속을 했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붓다의 제자들은 더욱 큰 기쁨에 젖었다.

웅장한 테너들의 합창 무대가 겹쳐 보이듯 학인스님들의 경전 읽는 시간이 끝나고 공양올린 다과를 함께 나눠 먹을 때는 ‘오랜 벗과 한 잔의 차를 나누는 느낌이 이러하겠지’ 하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넓고 푸른 풀밭위에

소들과 함께 놓여있는 사미니 승원

다람살라의 티벳 망명정부 청사와 네충사원이 함께 있는 마을까지 마중을 나온 티벳 사미니 스님(티벳은 비구니 스님이 없음)의 길안내를 받으며 달려간 곳에는 한 폭의 전원 풍경과 같은 아름다운 사미니 스님들의 수행처가 있었다.

긴 식탁 가득 다과가 놓여있는 단 내음 솔솔 나는 식당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느라 찻물을 몇 번은 데웠을 사미니 스님들의 미소가 어쩐지 산골 아가씨들의 미소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두 손 가득히 담아 함장배례를 나누고 아

름다운 승원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도시의 답답함과 차가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로서는 승원의 모든 것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들이 아니라 할 수 없었지만, 마냥 푸르고 따뜻한 축복이 내린 것 같은 이 승원의 풍경과는 다르게 살림살이 형편이나 공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들은 아주 열악하기만 했다.

어린 사미니 스님들은 영양이 부족하여 얼굴빛이 거칠고 약해보였고 생활용품이나 특히 여성용 생필품이 모자란 이곳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입는 일이 잦아 피부병 등 잔병치레 들을 많이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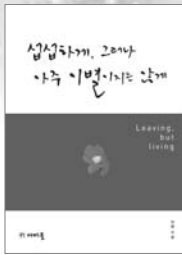
사미니 스님들이 역동적으로 토론하는 수업 장면을 볼 때는 모두가 신심이 발동하여 뛰는가슴을 진정할 길이 없었고, 정성껏 준비해 간 여성용품과 보시금과 몇 대의 노트북을 전달할 때는 초롱초롱한 어린 사미니 스님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공양을 올리지 못함에 모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마하보다 명상심리대학원에서는 다람살라의 불교논리 연구소와 사미니 승원에 초대 를 받아서 형제 자매와도 같은 귀한 인연을 맺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라 잃은 민족이라는 현실의 슬픔을 안고 이국의 버려진 땅에서 뿌리 없는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티벳 민족을 보면서 우리의 역사 또한 그러했음을 되돌려 느끼고 그런 우리의 슬픈 역사 속 그 순간순간에 약과 빵과 옷을 가져와서 나눠 주었던 친구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음을 또한 느꼈다.

‘우리는 하나’ 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한다. 그 말은 마치, 섬이 저마다 바다 위로 홀로 솟아나 있지만 바다 아래에서 한 뿔의 끊임조차 없이 연결되어 있음과 같은 의미인지도 모른다. 마하보다 명상심리대학원은 티벳의 두 학교와의 자매 결연을 통해 불이(不二)의 진리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은 보리심의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었음에 크게 환희했다. 卍





백금 귀고리를 하고 떠난 소녀

능행

결혼을 몇 달 앞둔 26세의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정토마을에 찾아왔다. 애인의 손을 잡고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온 그녀. 며칠 전 친구랑 회를 먹고 급체한 것 같아 병원에 갔다가 급성 위암 말기라는 진단에 그것도 생존 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았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 왜 돈을 준다고 해도 저 아이를 못 살리는 거예요. 말도안 돼요. 이럴 순 없어요. 살려야 해요. 스님, 제발 살려주세요.

며칠 후 검은 색 가방에 현금을 가득 넣고 찾아온 어머니가 돈을 내 앞에 뒹대기치면서 두 다리를 뺏고 통곡했다.

하루 이틀 환자의 몸은 점점 말라가고 물 한 모금 삼킬 수 없는 고통을 밤낮으로 겪으면서도, 죽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죽는 것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적도 없는 듯했다. 부모는 아이를 살려보려고 완전히 미친 사람

이 되었고, 더욱이 아버지는 곡기마저 끊어버렸다. 자식의 병이 자기 잘못이라는 죄책감과 아버지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는 더 괴로워했다. 그리고 전국을 뒤지며 약과 의사를 찾아 헤매다가 어디서 구했는지 불로초란 것을 가지고 와서는 한 모금의 물도 넘기지 못하는 자식에게 조금만 삼켜보라며 빌고또 빌었다.

●스님! 나는 병원 앞을 하루 두 번씩 매일같이 출퇴근하며 지나치면서 저 병원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입원해 있는지 한번도 관심을 가져 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돈 버는 일에만 미쳐다 보니 병원 병실의 불이 왜 밤새 켜져 있는지 몰랐습니다. 뭐 하느라 저렇게 불을 켜놓았나? 하는 생각만 했을 뿐 세상에 암 환자가 병원에서 이토록 많이 죽어가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욱이 내 새끼가 이렇게 죽을 거라고는…….

정원에서 있는 작은 나무를 붙들고 주저앉아 아버지는 아이가 들을까 소리 죽여 몸부림치며 통곡했다.

●살려야 해요. 꼭 살릴 겁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곁에 앉아 휴지를 잘라주다가도 몇 번씩이나 쓰러졌다.

●엄마! 아프지 마. 나는 어떻게 해? 선생님, 우리 엄마주사 좀 쳐주세요.

아무 것도 먹지 못하면서도 딸아이의 늘 밝게 웃었다.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보다 곤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 사랑하는 저 사람은 어쩔래?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 스님! 나 못 살아?

● 최선은 다해보겠지만……. 너는 요즘 너의 증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 네. 저도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것…….

● 그렇게 생각했어?

● 네.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그리고 엄마, 동생. 또 네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말이야.

● 모르겠어요. 그런데 스님!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 엄마는 절에 다니시지만 저는 종교에 대해 잘 몰라요. 하지만 난 요즘 내가 정말 살 수 없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 되나요?

●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 네. 다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여섯살이 되면 스님에게 와서 스님 제자 될래요.

그렇게 말하며 활짝 웃는 그녀의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 저 정토마을에와도 되죠?

● 그럼.

●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죠?

● 자, 봐라. 극락이라는 세계. 들어봤지? 그 세계의 부처님이시지. 우리 같은 중생들을 죽음이 없는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 그

곳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지. 아름다운 연꽃 속에서 태어난단다. 지금부터 네가 부처님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극락에 태어난다는 지극한 믿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부른다면 고통 없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에 안겨 극락에 태어났다가 네가 원하면 다시 이땅에 태어날 수 있단다. 우리 한 번 부처님 불러볼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삼귀오계(三歸五戒)를 주고 염주도 하나 선물로 손에 쥐여주었다.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새로운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날 찾는다는 전화가 왔다. 부랴부랴 서둘러 갔더니, 어느 중국 한의사가 그녀의 병을 낫게 해준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했다며 그녀의 온몸에 뜬 뜸을 뜨고 한 뺨이나 되는 침을 놓는 바람에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방의 온도는 35도를 넘어가고 있었다. 어떻게든 딸아이를 살려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지막 몸부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녀가 날 보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 나 극락으로 가야 하는데, 스님이 곁에 없어서 너무 걱정했어요. 스님이 아미타불 노래를 불러줘야 제가 따라 부르죠.

나는 그녀를 무릎에 누이고 아미타불 노래를 들려주었다. 온 식구가 초주검 상태였고, 어머니는 애를 죽인다며 필필 뛰었다. 오! 지옥이 어찌 죽어서만 있으랴…….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구급차를 부른 후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비로소 나

와 함께 삶의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다. 예쁜 발찌도 빼고 옷이랑 그림, 그리고 종이화 천 마리 등등. 하지만 예쁜 백금 귀고리는 여전히 걸고 있었다.

- 귀고리는?
- 스님, 귀고리는 빼지 마세요.
- 왜?
- 다음에 제가 정토에 찾아오면 스님이 날 어떻게 알아봐요. 귀고리를 하고 와야 저인 줄 알지요.

- 그래. 그게 좋겠구나!
- 우리 그때 다시만나요.
- 그래, 이놈아! 아마타부처님 만나서 극락에 가거든 잘갔다고 꼭 전해줘야 해. 알았지?

그녀는 오후부터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무릎에 누이고 함께 아마타불 노래를 불렀다. 의식은 초롱초롱 맑았지만 어느새 혀는 점점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타불을 부르는 모습이 안타까워 나지막이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다.

- 마음 속으로 해도 된단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 그렇게 극락세계에 가고 싶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다.

- 부처님! 어서 이 곳으로 강림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이토록 서원하는 이 아이를 당신의 감미로운 능라로 감싸 안아 주시옵고, 당신의 품에 편히 안기어 정토에 태어날 수 있도록 대자비를 베푸소서. 이 맑은 영혼을 당신

의 손에 맡가나이다. 거룩한 넘이시여! 사십팔원 四十八願 원력 願力 바다로 돌아가 당신의 자비를 구하오며 이 몸 던져 비웁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녀가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 부처님 오셨니?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었다. 잠시 병실을 비웠던 어머니가 들어오자, 두 손을 벌려 제 어머니의 목을 끌어안았다.

- 엄마!

- 여기 있어.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함께 조금 후 숨소리가 멈추었다.

- 잘 가거라.

어미는 한참 동안 죽은 딸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 울다 지쳐 쓰러진 어머니의 꿈에 그녀가 나타났다.

- 엄마!나 부처님이 안고 갔다. 병원에 올 때는 걸어서 왔는데 부처님이 날 안고 극락으로 가셨다. (땀 뚝 자리를 보여주며) 엄마, 이것 봐. 부처님이 다 없어지게 해주셨어.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흉터도 없어. 아빠 용서해 주고 잘 살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 스님께도 꼭 말해줘. 나 극락세계 갔다고. 그리고 부처님이 날 안고 있다고. 엄마 가게 장부 저기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 것은 받지 마. 응? 내 차로운전 배우고. 엄마!나 이제 간다.

미친 사람처럼 허둥대던 어머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 내 새끼야, 잘 가거라. 卍

선재회

어두운 세상
불 밝힐 연등 하나!
오늘도 반야지혜 담아
연꽃 한 잎 한 잎
어여쁘신 님의 마음은
한 송이 연꽃입니다



여름철 별미 머위

연호, 만옥스님

머위는 머우, 머구라고도 불립니다. 짹짹~한 맛이 무더운 여름철 입맛을 돋굽니다. 머위의 효능은 기침, 가래에 탁월하며, 간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머위 뜯으러 소쿠리 하나 들고 무턱대고 가는 저를 노스님이 부르십니다.

“야야~ 머구 뜯으라카문 장화신고 가야제~” 그렇습니다. 머위는 그늘진 곳이나 습한 곳에서 주로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 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머위 채취할 장비를 챙깁니다. 밭짚모자를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소쿠리, 가위를 준비한 뒤에 장화까지 신고 교육원 앞쪽 언덕배기에서 한 소쿠리를 가득 뜯어 왔습니다.

뜯어온 머위를 후원 뒷편에 쏟아놓고 노스님과 다들습니다.

“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머위대는 들깨즙을 해묵으면 되고, 여기 연한 놈은 데쳐서 된장에 무침하문 된데이” “노스님, 초장에 무치면 안되나요?” “와~ 초장에도 된다.”

“노스님, 그러면 새콤달콤하게 초장무침 해주세요.” “그래라~ 잎은 찌서 짹짹먹어도 된다” “머위는 버릴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 여름에 머위만 한기 없다.”



〈머위대 들깨즙〉

재료 : 머위대, 표고버섯, 청고추, 홍고추, 들깨가루, 들기름, 간장,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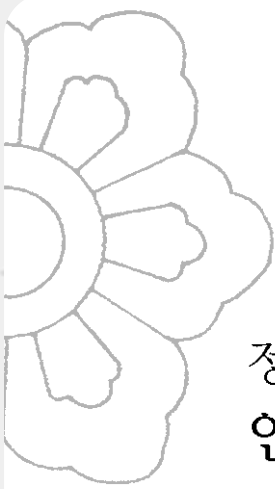
1. 머위대를 적당히 삶아서 물에 불린 뒤 껍질을 잘 벗겨낸다.
2. 벗겨낸 머위대를 먹기 좋은(손가락만한 정도) 크기로 잘라낸다.
3. 표고버섯, 청고추, 홍고추 등을 썬다.
4. 팬에 머위대와 표고버섯, 들깨가루, 들기름, 간장, 소금 등을 넣고 자박할 정도의 물을 부어가면서 간이 배도록 졸인다.

〈머위 초장무침〉

재료 : 어린머위, 초고추장, 통깨

1. 어린 머위를 데친 뒤 줄기부분의 껍질을 벗겨낸다.
2. 먹기 좋은 크기로 찢은 후 물기를 꼭 짠다.
3. 가족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든 초고추장과 통깨를 넣고 머위와 잘 버무린다.

든든한 보양식인 머위대 들깨즙과 새콤쌉사름한 머위 초장무침으로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을 활기차게 보내세요. ㅍ



정토마을의 인정, 열정 연호스님

글 | 편집부

정토마을 자제병원을 오기는 분들은 연호스님을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다. 밥 때가 되면 밥을 꼭 먹여서 보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따듯한 차라도 한 잔 먹여서 보내는 스님의 인정스러움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연호스님은 2003년 15기 호스피스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정토마을에서 홀로 환자들을 돌보며 사는 능행스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혼자서 공양간으로 병실로 오가며 일인 다역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홀연히 '금생에 사는 한 이 곳에서 능행스님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야겠다.' 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토마을에 집을 풀고 살게 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십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하루도 빠끔한 날이 없을 만큼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환자는 죽어간다고 연락이 오는가 하면 병원 점안식을 한다, 기공식을 한다, 호스피스 교육을 한다, 바빠서 몸이 열 개라도 당해 낼 수가 없는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빨리 오리는 정토마을 식구들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올라가 임종기도 하고 바로 다시 차를 돌려 언양으로 와 행사준비를 마쳐야 하는 빠빠한 시절이었지만 힘든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문에 “봐라, 내가 태생이 힘이 좋다 아이가.” 하며 호탕하게 웃으신다. 스님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회생과 헌신의 자세가 그저 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듯하다.

언제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느냐고 여쭙자 자제병원 건물 쪽으로 눈을 돌리며 “이번 행사 때는 의식이 시작될 때부터 자꾸 눈물이 나드만. 오색실이 올라가며 필력일 때는 가슴이 뻑뻑하도록 벅차드만.” 하는 스님의 눈이 어는새 물기로 반짝인다. 자제병원의 의미가 누구보다도 남다른 것이다.

스님은 정토마을에서 통증 때문에 괴로움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죽음을 볼 때 가장 가슴

이 아팠다고 한다. 특히 2004년도에 병도 힘든데 통증마저 괴로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한 스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스님들의 죽음은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내 아픈 걸 남들이 보는 게 싫다. 다른 스님들도 그럴 거 아이가.” 그 말씀속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듯했다.

“나는 우리 정토마을에서 일하고 사는 스님네들과 직원들이 천사라고 생각한다. 누가 뭐라 뭐라케도 나는 그래 봐지대.”

머위 줄기를 다듬는 스님의 손길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공동체 가족들에게 들깨가루 많이 넣은 머위 찜을 먹여야겠다고 손이 먼저 속삭이고 있는 듯했다. 卍



인생을 수행으로 노래하는 국민가수 **현철**

글 | 편집부

음악인생 40년을 흔들림 없이 국민적 인기를 유지하며 트로트계 황제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토종된장 같은 구수한 목소리의 주인공 현철씨.

그를 부르는 수식어는 ‘국민가수’를 비롯해 ‘대가만생’ ‘한 우물만 판’ ‘가시밭길을 걸어온’ 등과 같이 끈은 의지력을 보여준다.

고향이 향도 부산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굳이 고집하며 자신을 드러내기가 가장 적격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경상도 사나이이다. 별명이 ‘고래심줄’로 통하는 것은 그가 가요계를 걸어오며 한 우물만 판 이력의 경상도 사나이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리라.

현재는 국민가수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이지만 그 또한 끝도 안 보이는 무명의 시절이 있었다. 1969년 ‘무정한 그대’로 데뷔한 현철은 1974년 현철과 별떼들을 결성하고 1980년까지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였었다. 1980년대 리비아에서 대수로 공사 중인 우리나라 건설역군들을 위한 ‘가요무대’에 초청돼 쟁쟁한 스타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을 때 그 곳에모인 사람들이 리비아로 가는 근로자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동건 MC마저도 “저사람 대체 누구냐?” 고 물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톡” 하고 인기 붓물을 터뜨렸다. ‘앞으나 서나 당신생각’ 을 불러 많은 남성들로부터 아내와의 사랑을 확인케 해주면서 히트곡이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사랑은 나비인가봐’ ‘내 마음 별과 같이’ ‘못난 내 청춘’ ‘봉선화 연정’ 등의 후속곡들이 그를 완전한 인기가수, 국민가수로 자리매김케 해주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꿈이 가수였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생애도 가수의 길을 걷겠다는 그의 오롯한 삶의 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가히 수행승의 심지와 다름이 없어 보인다. 그의 ‘스타 신조관’ 또한 남다르다. 스타란 팬들의 성원을 받아야 하고 히트송이 있어야 하고 가창력과 연조가 깊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특히 스타이기에 사생활이 깨끗하고 사회에 봉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불자가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스타의 길을 통해 팬들로부터 받은 인기와 사랑,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을 위해 회향하는 행을 실천해 보여주

고 있다. 근육병환자, 심장병환자 기금자선공연을 비롯해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 의리의 사나이이기도 하다.

정도마을 자제병원 불사에도 그는 마음모아 성원을 보내주며 “제가 저의 재능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불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구수한 미소로 전하였다. 어찌 그를 일러 ‘인생을 수행으로 노래하는 가수’ 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卍



마음의 창문을 많이 만드세요.



김 여 환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센터

‘집과 무덤 이다른 점은 딱 하나이다. 창문이 다. 외부와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없는 집이 바로 ‘무덤 이다. 벽에 천마^{天馬}가 그려진 신라시대 무덤인 천마총에는 금관이니 장신구니 값진 보물이 많지만, 창문은 없다. 그래서 무덤일 수밖에 없다. 우리네 ‘삶과 죽음’도 그렇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으면, 그것이 바로 ‘살아 있는 죽음’ 일수 있다.

디 아더스(The Others)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다. 공포 영화이다. 참혹할 만큼 아름다운 그레이스 부인(니콜 키드먼 분)은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낸 후,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과 함께 해안가 저택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저택에 자신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 둘 발견하면서 불안해한다. 아이를 지켜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강한 사명감도 있었다. 외부 침입자들을 유령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공포 영화로써의 구실을 톡톡히 한다. 마지막에 등골이 오싹하는 반전은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레이스와 그 아이

들이었다는 것이다. 단지 그들과 관객들만 그 사실을 몰랐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는 창문에 무겁고 두터운 커튼을 친다. 그녀는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유령이기 때문에 집이 아닌 창문 없는 ‘무덤 이 필요했다.

선자 할머니(65세)가 입원한 후로 303호는 늘 반찬냄새로 가득했다. 그녀의 식사 시간이 죽어 2시간은 넘기기 때문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가 먹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큰 딸이 계속 입안으로 음식물을 밀어 넣었다. 어쨌든 다른 환자들이 참이주어서 다행이었다. 같은 방에 입원한 몇 주째 식사를 못하시는 위암환자도, 연신 구역질해대는 간암환자도 별 말씀 없으시다. 그러나 나는 식사시간이 남들과 다르니 인슐린 처방을 내기가 어려웠다. 혈당이 들쭉 날쭉이다. 그녀는 폐암이 머리로 전이된 암환자였지만, 그전부터 당뇨가 있었다. 운이 나쁘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폐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이된 머리 쪽의 암이 훨씬 심각했다.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으로 거의 바보가 다 되었다. 그저

눈만 껌벅이는 정도였다. 씹거나 삼키는 기본적인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다. 밥을 먹다가 음식을 입에 물고 잘 때도 있었다. “방사선 치료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하면서 가족들은 애가 됐다. 그중 제일 힘들어 하는 사람은 그녀의 큰 딸이었다. 그래서 나는 “방사선 후유증이긴 했지만, 만약 그것을 안했으면, 더 빨리 떠날 수 있다.”는 의학적 지식도 알려주어야 했다.

30대 후반인 선자 할머니의 큰 딸은 미혼이다. 그녀의 두 여동생은 결혼해서 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러니 간병은 당연히 큰 딸의 몫이었다. 의사표현이 서툰 환자는 간병하는 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큰 딸은 유달리 엄마의 밥 먹는 것에 집착을 했다. 잘못 들어간 밥알이 흡인성 폐렴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였다. 동생들에게 부탁해도 “우리 언니는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저 묵묵부답이었다. 간호사들이 번갈아 설득하고 나는 회진 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다.

목욕한 날이었다. 아나나 다름까 선자 할머니 입안에 아침식사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목욕 봉사자들이 목욕하다 말고 손가락으로 통통 붙어 있는 음식을 한 그릇 이상을 긁어냈다. 위험한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심각한 면담을 하려고 진료실에 큰 딸을 불렀다. 그렇지만 그녀는 상담도중에 “나는 우리 엄마 밥 먹여야 하거든요!” 하고 나가버렸다.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소통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살고 있지만 죽은 것이다. 그 반대

의 경우도 있다. 이제 영원히 떠난 부모를, 아내를, 그리고 자식을 가슴에 담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차피 우리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마음의 창문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떠나도 진실이 통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 살아갈 수 있을테니까. ㅍ



김 여 환 金女煥 · Kim Yoehwan

학력

- 199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2002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2004년-2007년 2월 대구의료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
- 2008년 국립암센터 호스피스고위과정 수료

경력

- 현 대구의료원 제 3가정의학과 과장
-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장
- 2009년 국가암관리평가대회 호스피스 부문 복지부장관상 수여
- 2010년 호스피스 사진전 대상 -국립암센터 주최
- 2011년 호스피스 수필전 우수상 -국립암센터 주최
- 대구매일신문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컬럼 -호스피스와 영양식품이야기 연재 중
- 독차 사범

저서

- 행복을 요리하는 의사
- 죽기전에 더 늦기전에(3월 출간예정, 청림출판사)

이메일 : dodoyun@hanmail.net

작은사랑의 실천을 아낌없이 드리고 갈수 있는 곳
또한 감사와 사랑실천에 희망을 안겨주는
정토마을을 사랑합니다.

- 들꽃지기 봉사단 -



웃을수록 웃을 일이 생깁니다.



용정운 | 부다일러스트

정토마을의 하루

이세정 | 정토마을 간호사

눈부신 햇살과 함께 봉고차에 몸을 실어 풀내음, 꽃내음과 함께 바람의 속삭임을 들으며 정토로 향했다. 정토마을은 산과 나무로 에워싸여 있었다. 호스피스 병동이라 하지만, 어쩐지 푸근한 집과 같았다.

병동에 들어서는 순간 눈에 띈 한 분이 계셨다. 바로 선래스님이다. 소뇌위축증이라는 병을 가진 스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커다란 눈에 오뎅한 콧날, 붉으스레한 입술을 가진 스님은 나를 쳐다보며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하고 물으셨다.

“네, 스님 저의 집은 000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목욕을 처음 시켜드리던 날, 스님은 하나하나 자상하게 요령을 알려주셨다.

“머리를 밀 때는 머리 먼저 감기고 물을 축여야 돼요. 옷은 팔부터 벗은 다음 머리위로 벗겨야 돼요. 수건은 의자에 깔아야 해요, 궁둥이가 아프니까...”

한 번도 스님의 머리를 식발해 본 적도, 목욕

을 시켜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서투르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스님께 설명을 드렸다.

“스님 제가 처음이라 그래요. 하다보면 잘하게 될 거고, 다음에 할 땐 순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해 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그랬더니, 방그레 웃으셨다. 이렇게 스님과 나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지내고 있다.

스님의 일과는 이러하다. 낮에는 주로 TV를 보시고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시고 가끔 끄는 워커를 잡고 운동을 하고 간식과 식사가 끝나면, 저녁 9시에 취침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염주로 예불을 본 다음 TV를 보다 아침공양을 누룽지로 하신다. 누룽지는 설 끓이고 물이 많이 있는 걸 좋아하신다.

다른 환자들이 주무시는 밤 시간, 창문 밖을 내다보면 산사에 고요함이 흐른다. 어둠속에 길게 깔린 밤의 안개가 아픈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듯이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다. 그렇게 정토의 밤

은 깊어만 가고 새벽의 아침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범당에서 들리기 시작한다.

목탁소리는 62세의 김00 어머니의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 어머니가 한없이 우신다. 흐르는 눈물이 겹옷을 다 적실 정도로... 해은스님의 목탁소리는 더욱더 심금을 울리고, 고요함 속의 부처님 미소는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날이 밝았다. 창문 밖의 햇살은 따스하고 새소리는 아름답고 풀냄새는 코끝을 자극하고 싱그러움이 눈을 부시게 한다. 갑자기 선래스님이 우신다. 스님이 우는 그곳으로 향했다.

“스님, 왜 우세요?”

“아유, 힘들어. 화장실에서 아저씨가 너무 오래 목욕을 해서 오줌 쌀 땀했어, 얼른 가고 싶어. 언양으로...” (언양에 통증완화병원인 자재병원이 건립중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찡찡대신다.

“땀이 험드셨겠어요. 이마에 땀 좀 봐. 스님, 현대 이쪽 화장실을 못쓰면 다른 쪽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어떻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도와 드릴 테니 울지 마세요.”

스님은 울음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환자들의 방을 들여다보고 일상들을 체크하다 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생긴다. 마음이 잔잔

사연도 있다. 남자 환자 한 분은 여동생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신다. 소독을 하러들어간 나에게 환우분이 우시면서 말을 건넨다.

“간호사님, 편지가 너무 슬퍼요. 동생이 못해 줘서 미안하네요”

읽어보라며 편지를 건네주셨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 오빠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미안함이 글로 잘 표현되어 있었다. 대정암 말기의 오빠를 정토마을에 보내놓고 동생은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결혼도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오빠를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아련해지는 듯하다.

이제 이 분들이 다른 세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그들을 보내야 한다. 보내고 싶진 않지만

이들을 통해 사랑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이들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싶다. 이들과 더불어 사랑을 배우고, 같이 살면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나눌 것이다.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정토에 울려 퍼진다. 卍

CPE, 내 삶의 청소 작업

이영희 | 2011년 가을학기 수료생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교육, 처음 쓴 나의 자서전에는 눈물과 한숨, 억울함, 피해의식이 가득했다. 지난 삶에 대한 원망과 죄책감,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거부와 억울함, 연민과 미움이 소용돌이 쳤던 나의 언어들...

CPE교육을 마친 지금 다시 쓰는 나의 자서전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남편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들어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름 아닌 나일뿐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던 나, 그래서 내 오십 년 삶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라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모두가 아픈 동시에 사랑이었다.

가계도식 발표를 통해 우리 가족의 까르마(업業)를 자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휘하는 기본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것들을 나에게도 행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 후 '보호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틀로 '맞다, 틀리다'로 규정짓는 나의 버릇은 나의 감정과 기분도 그렇게 규정지어 이른바 '부정적이다'라고 규정짓는 기분을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내가 있었다. 당연히 느껴야 하는 '분노, 상실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고 있는 내가 있었다. 단지 피해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만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었던 것이다.

CPE교육이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우리 여덟 명의 그룹원들은 불빛이 환해질 때까지 땀을 흘리기도 하고, 슈퍼바이저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밝게 드러낼 신념을 찾아내고, 또 그 삶을 바꾸어줄 각자의 만

트라를 만들었다. 그룹원 한명 한명이 모두 무대로 나가 자신의 존재로서 만트라를 선언했다. 존재의 터에 그 씨앗을 심었다. 만트라를 심고 돌아가는 저녁, 내게 걸쳐진 어둠의 안개 덩어리가 걷혀가는 것을 느꼈다.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영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의 만트라는 내 존재에 비쳐드는 햇살이다. 내 만트라와 하나가 될 때 내 세포들은 기쁨에 반짝인다. 질어지는 가을 산속으로 햇살이 비쳐들 듯 나무 잎들이 햇살에 빛을 발하듯 시냇물이 산을 씻어 내리듯 내 만트라는 내 존재에 비쳐 들어오는 햇살, 나를 축여주는 물이다.

내가 목이 말랐던 그 이유는 단지 내 바가지가 얹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목이 말랐던 그 이유는 내가 내게 불박혀서 한발자국도 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나무가 매듭을 만들어서 쪽 뺏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CPE교육은 내 오십년 삶에 매듭을 만들어 주었다.

최종평가 하는 자리에서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한 대로 어떤 구름을 부르는 손오공이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 나의 만트라는 내가 탈 구름을 부를 것이다. 내게 온 CPE가 우유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배움을 큰 것인양 떠벌리지 말고 겸손해져야겠다. 卍



☞ 보디사트바 원고 공모 안내

이야기가 있는 풍경에 글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대신 능행스님의 산문집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 후원자로서의 경험과 여정, 봉사자로서의 경험과 여정, 법화경기도를 통한 가피와 경험 그 외 개인적인 임상경험 혹은 정토마을 자제병원과의 인연에 대한 에피소드 등)

정 情

남정



산책길...

무심코 바라본 하늘..

늘 이 길로만 다닌다..

무심코 나와도 이 길..

작정하고 나와도 이 길...

情

정 때문이다..

다니다 보니.. 살다보니 정이..

정이 든 것이다..

함께 하다보니

정이 드는 것..

그리 함께 그냥 걷는 것이 정이라..

좋고 싫은 것 많으나

늘 설레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것은

사랑이다..

잡힐듯 잡히지 않고

가진듯 가지지 못한 채

마음만 조금한

함께 걷고.. 그렇게 살다보면

찾아드는 것이 인연이요

정일진데....

있는 그대로 보아주고

말없이 손잡아 주는 것

지켜보아 주는 것

그것이 정이고,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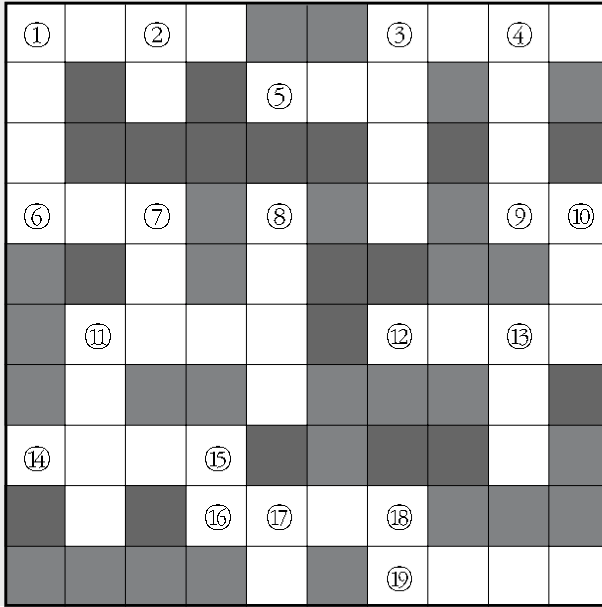
누구 말대로

情

뚝 떨어질 만치

열심히 살아보아야

진짜 정을 알까?! ㄸ



민선생의 십자말풀이

잡학과 시사,
그리고 불교용어도 배울 수 있는
퍼즐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가로 풀이

1.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 보리의 지혜를 구하여 닦다
3. 아래로 중생을 가르쳐 깨달음으로 이끌
5. 높은 온도로 광석을 녹여 철, 구리, 납 따위의 금속을 제련하는 세로형의 가마
6. 삼보사찰의 하나. 팔민대장경을 보유한 법보사찰
9. 나물이나 약초를 따거나 캐
11.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말
12. 거북한 쇠에 누워 자고 쓴 쓸개를 맞본다는 뜻. 굳은 결심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14. 조선 세종 때 수양대군이 한글로 편역한 석가모니의 일대기
16.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잘하도록 격려함
19.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果報)를 자기가 받음

세로 풀이

2. 뽕나무 발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세상이 몰라 볼 정도로 바뀐 것
2. 보리살타의 준말
3.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 시기를 놓쳐 쓸모없는 사물
4. 많은 것에 적은 것은 적이 되지 못한다
7. 부처님의 제자중 지혜제일로 불리는 제자
8. 개와 원숭이 사이라는 뜻
10. 중국 명대(明代) 홍응명이 지은 삼교일치(三教一致)의 통속적인 처세 철학서
11.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13. 순수학문을 지향하는 대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건강 등을 이유로 마시는 술의 양을 알맞게 줄임
17. 부처에게 올리는 법
18. 말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덧대어 붙이는 쇠조각

가로정답

1. 보리정사 ① 2. 불교용어 ② 3. 불교용어 ③ 4. 불교용어 ④
 5. 불교용어 ⑤ 6. 불교용어 ⑥ 7. 불교용어 ⑦ 8. 불교용어 ⑧
 9. 불교용어 ⑨ 10. 불교용어 ⑩ 11. 불교용어 ⑪ 12. 불교용어 ⑫
 13. 불교용어 ⑬ 14. 불교용어 ⑭ 15. 불교용어 ⑮ 16. 불교용어 ⑯
 17. 불교용어 ⑰ 18. 불교용어 ⑱ 19. 불교용어 ⑲

세로정답

1. 불교용어 ① 2. 불교용어 ② 3. 불교용어 ③ 4. 불교용어 ④
 5. 불교용어 ⑤ 6. 불교용어 ⑥ 7. 불교용어 ⑦ 8. 불교용어 ⑧
 9. 불교용어 ⑨ 10. 불교용어 ⑩ 11. 불교용어 ⑪ 12. 불교용어 ⑫
 13. 불교용어 ⑬ 14. 불교용어 ⑭ 15. 불교용어 ⑮ 16. 불교용어 ⑯
 17. 불교용어 ⑰ 18. 불교용어 ⑱ 19. 불교용어 ⑲



Bodhisattva



1



1



2



3



3



4

1 정토마을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인도수행 (3월 5일~12일)

정토마을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은 3월 5일~12일, 6박7일의 인도수행을 진행하여 총 28명의 대중들이 무사히 큰스님들을 친견하고 인도 다람살라의 대학을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토마을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은 두 대학교에 컴퓨터10대와 공양물 공양금 등을 전달하였으며 학술협력체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식을 교류하고 탁마하는 동맹을 맺기로 결의하였다.

2 법화경 철야기도 (3월 24일, 4월 28일, 5월 26일)

3월 24일 법화경 철야기도에 앞서, 정토사 관자재회 이사장이신 능행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에 동참한 이들의 정성과 정진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리는 지복한 공양이라고 말씀하시며 새로 동참한 법화행자들을 격려했다. 철야기도 후 능행스님과 기도에 참여한 대중들이 모여앉아 기도를 통해 변화된 자신과 기도의 여정 등에 대해 나눔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3 정토마을자제병원 상량대법회 (4월 1일)

정토마을 후원자들의 소중한 뜻을 모아 자제병원을 상량하는 상량대법회가 통도사주지 원산큰스님과 안국선원 선원장이신 수불큰스님을 모신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오색실이 자제병원의 중심에서 드리워지고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통도사주지스님의 축원과 함께, 참석한 이천여명 후원자들의 염원이 법계를 장엄하였다.

4 직원연수교육 - 붓다팔라스님의 사띠수행

(4월 6일부터 16주간 매주 금요일)

정토마을 행복공동체는 4월 6일부터 붓다팔라스님을 모시고 직원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공동체를 지향해 나가는 정토마을은 직원들에게 알아차림을 통한 교육을 통해 지혜와 자비심이 증장되어 중생을 위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정/토/마/을/행/복/공/동/체/소/식

Bodhisattva

5 불교호스피스 3기 승려연수교육 (4월 24일~ 27일)

마하보디교육원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의 승려연수교육을 시작하였다. 이 교육에는 비구·비구니스님 총 34명이 이론과 실제 31시간의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식을 거행하였다.



6 CPE센터 정토마을 소풍 (5월 4일)

한국CPE협회 소속 9개의 센터에서 정토마을 시설을 방문하며 영적 성장과 돌봄에 대해 공유하였다. 능행스님은 강의를 통해 불교의 호스피스와 불교적인 사별가족돌봄에 대해 49재를 통한 사례를 들며 앞으로 각 종교의 방법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적합한 돌봄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7 울산 연등축제 (5월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제등행렬에 정토마을 행복공동체는 정념회와 현불회 그리고 사물놀이패 등 약 일백여명과 함께 흥겨운 놀이마당을 가지며 거리행진을 하였다. 태화강에서 출발하여 울산의 중심을 행진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께서 세상에 오심을 찬탄하고 연등을 밝혀 법계에 공양 올리는 이 행사는 울산 시민과의 어울림 나눔의 한마당이 되었다.



8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5월 28일)

정토마을 행복공동체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정토마을 공동체 사부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육법공양을 올리고 방문하는 모든 불자들을 위해 차와 깔러리, 연꽃등시연회, 염주만들기 등의 이벤트를 통한 배품의 장을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기렸다. 자체병원을 방문한 후원자들과 대중들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함께 자체병원을 탐돌이하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회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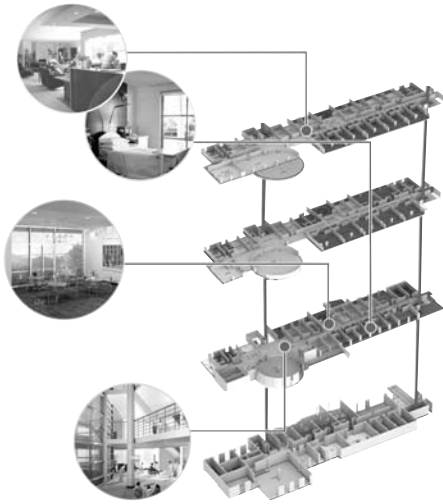




- 개원일 : 2013년 5월 예정
- 건축면적 : 지하 1층, 지상 3층
3,306㎡ (1,000평)
- 병상수 : 108병상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완화의료전문 자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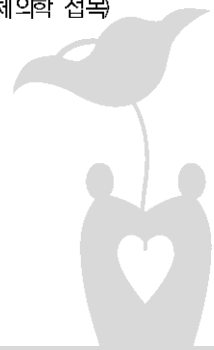


3F 승가병동

2F 통합의료재활병동(한의학, 대체의학 접목)

1F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B1 임상병리실, 자원봉사자실



자제병원은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의 희망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전문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자제 병원은 죽음을 통한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품위 있고 존엄한 삶에 대한 학습은 물론 평온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돌봄과 지지를 제공하여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KTX 울산역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자제병원 사무국 <http://jungtoh.org>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55-8588(대) FAX. 052)254-2347



- 개원일 : 2000년 10월 26일
- 형 태 : 독립형 호스피스
- 병상수 : 15병상



불교계 최초의 독립형 호스피스인 정토마을은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자비 실천의 사랑으로 성심을 다하는 간호와 지지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동행... 정토마을이 함께합니다!

소리없이 외치는 병든 생명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우의 통증관리와 영적지지, 다양한 Case 연구를
통해 정토마을은 21세기 발전된 호스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복잡한 절차없이 전화상담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입소대상 : 말기암 또는 이에 준하는 말기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
- 운영시간 : 24시간 전인적 돌봄 제공

상담(전화/방문/인터넷) → 입소심사 → 입소통보 → 입소

- 신청 접수시 환우분의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마음돌봄 전문가로 탄생되는 CPE교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교육 일정 안내

- 과 정 : 봄학기(3월~6월), 여름학기(6월~8월) 가을학기(9월~12월)
- 기 간 : 16주간
- 일 정 : 봄·가을학기: 매주 일요일 / 여름학기: 토·일요일
- 시 간 : 오전10시 ~ 오후 5시 30분
- 인 원 : 8명 (정원)

가을학기
9월 개강
교육접수중!

Q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란?
삶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을 위하여 마음돌봄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Q 마음돌봄이란?
마음의 고통중에 있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입니다.

Q 마음돌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삶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돌봄의 대상입니다.(예:환자, 보호자, 사별자, 중독자, 재소자, 이주민, 행려자,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 전문적인 마음돌봄이 요구됩니다.(예:병원, 학교, 군대, 교도소, 경찰서, 가정, 직장, 상담소,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Q 교육 후에 얻게 되는 것은?
가장 큰 결실은 영적돌봄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예: 리더십, 자기돌봄능력, 대인관계 기술, 상담기법 등). 또한 학생은 교육후에도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전문적인 영적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CPE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정도마을 언양 마하보디센터 임상보디사트바교육(CPE)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번지 마하보디교육원 3층 CPE센터

교육문의 Tel : 052)255-8520~1 • <http://jungtoh.org>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입학안내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은 심리치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불교의 사상과 수행방법, 상담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명상을 통한 심리치유방법을 중점적으로 연구합니다. 특히 임상과 실습을 강조하여 빠른 시간 안에 심리치유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성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임상과 치유를 중심으로 한 전문 상담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돌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 불교의 교학과 현대심리학을 통합하는 불교심리학살 이론의 체계화
- 명상수행과 심리상담의 접목을 통한 전문명상심리치유사 양성
- 인간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수행과 교육을 통한 자아발전

» 입학안내

□ 지원자격

- 1) 지도자과정
 - 학사자격이 없지만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석사과정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연한 및 시간

- 지도자과정 - 4학기 석사과정 - 5학기
- 매주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 학위 및 자격증 취득

- 지도자과정 이수시 본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명상심리치유사 자격증 취득
- 위탁대학교와의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위탁대학교지도자과정 수료증 취득
- 위탁대학교와 교육협정에 의거한 석사학위 취득

□ 전형일정 · 제출서류와 입시상담문의

- 수시상담을 통해 입학 안내
- 전형 서류 제출기간 : 11월 29일 ~ 12월 14일
- 전화 : 행정실 052)255-8500, 010-4656-0180
- 홈페이지 : <http://mahacounseling.com>
- Daum 카페 : 마하보디 명상심리대학원

지도자과정
2학기
신입생 모집!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교육 「청소년 위기상담」

재단법인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은 수행과 돌봄의 특수전문 교육기관으로서 2012학년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승인받아 다음과 같이 교원 및 교육전문직 직무연수를 실시합니다. 청소년 상담에 관심 있는 교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자 : 전국 초, 중, 고등교원 및 교육 전문직
- 연수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마하보디교육원
- 연수기관명 : 재단법인 정토마을 마하보디교육원
- 연수기간 : 2012/08/20/월 ~ 2012/08/24/금(09:00-15:50, 5일 총 30시간)

- ▶ 과정개요 : 직무교육현장의 교사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고통 받는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치유와 돌봄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청소년 위기상담과 고통치유에 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심리치유 상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 세부과정 : 상담 이론과 실제 / 자기치유와 돌봄 / 청소년 심리의 이해 / 청소년 중독의 이해 / 청소년 스트레스와 분노조절 / 청소년 자살을 바라보는 시선 / 중재 / 회복적 대화모임 / 청소년 성상담 / 청소년 가족상담

- 정 원 : 40명
- 접수방법 : 교원직무연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FAX (02)765-4381로 전송하거나, 또는 its96@naver.com으로 메일 접수하고, 연수비를 입금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입금 후, 전화 052-255-8521~22로 확인바랍니다.)
- 연 수 비 : 130,000원 -재료비 별도 20,000원 (30시간)
- 입금계좌 : 국민은행 713701-01-140961 예금주 (재)정토사관자재회

제8회 자격시험 「1급 요양보호사 교육」

- ▶ 대 상 : 요양보호사 결격사유가 없는 분(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규정)
- ▶ 접수마감 : 2012년 8월 27일(월)
- ▶ 교육기간 : ① 2012년 9월 3일부터~9월 28일까지 (4주간)
② 2012년 9월 28일 이후 실습 10일
- ▶ 자격시험 : 2012년 10월 31일(수)
- ▶ 수 강 료 : 60만원
- ▶ 문 의 : 052)264-1007, 255-8521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국가자격증
취득

울산
광역시지정
교육기관



6월경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에서

협회지 「The 아름다운 사람」을 발간합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KRBHA)는 협회지 「The 아름다운 사람」을 통해서 국내외 회원들에게 호스피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진 불교 호스피스 봉사단체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가교역할에 앞장 서겠습니다.

협회의 소식지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협회사무국 (052-255-8530)으로 연락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미마을

아미마을 편집사 <http://jungtoh.org>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138-1 TEL, 052)255-8520~1 FAX, 052)264-0209



섬섬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지은이 : 능행 | 펴낸곳 : 아미마을

값 : 15,000원

불교수행자들이 호스피스로 일하는 정토마을에서 천여 명의 죽음을 배웅해 온 능행스님의 산문집.



이순간

지은이 : 능행 | 펴낸곳 : 한겨레출판

값 : 12,000원

호스피스가 곧 수행의 도구라는 능행스님의 두 번째 산문집이다. “죽음과 온전히 직면할 때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선다”는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펴냄.



불교임상기도집

펴낸이 : 능행 | 펴낸곳 : 아미마을

값 : 30,000원

병상에 있는 환자와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들을 위한 기도의 교과서.

책주문 052)255-8588
052)255-8520





정토마을 자제병원 **후원자** 함께가꾸기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후원 회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은 삶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고통 받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이 됩니다.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가족되기

■ ☎ (무료) : 080-255-8588 ■ 홈페이지 : <http://jungtoh.org> ■ 방문

당신의 고귀한 기부금은

- 치유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의 기금으로
- 불치병 환자를 비롯한 특히, 암환자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사업 기금으로 쓰여 집니다.

1인 1만원 1계좌 3만 후원자 운동

-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릴레이에 동참하도록 합니다.
- 한 사람의 후원은 한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상세한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 (JUNGTOH.ORG)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공동체후원금
물품후원
복대지분양

나눔동참계좌

국민은행 701401-01-202462
농협 401131-51-080245
예금주 재단 정토사관자재회

해외송금계좌

Kookmin bank seoul korea
713701-01-132115
JUNGTOHMAEUL

연양 사무국 TEL. 052)255-8588(대) FAX. 052)254-2347
충북 사무국 TEL. 043)298-2258(대) FAX. 043)298-1457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p>자제 병원 함께만들기 1</p>	<p>불교 최초 완화 의료 전문 자제병원 건립기금</p> <p>■ 건립기금 나눔 계좌 • 국민은행 713701-01-140922 / 농협 401131-51-075952 • 예금주 : 정토사관 자재회</p>	
<p>자제 병원 함께만들기 2</p>	<p>불교 최초 완화 의료 전문 자제병원 병상모연</p> <p>■ 병상모연 나눔 계좌 • 농협 815039-55-003185 • 예금주 : 정토사관 자재회</p>	
<p>자제 병원 함께만들기 3</p>	<p>겨겨가는 생명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일 한 생명 살림 등</p> <p>■ 한생명 살림 등 나눔 계좌 • 농협 401120-51-017461 • 예금주 : 정토마을</p>	
<p>자제 병원 함께만들기 4</p>	<p>자제병원 희망시멘트 모연</p> <p>■ 희망시멘트 나눔 계좌 • 농협 401120-51-016809 • 예금주 : 정토사관 자재회</p>	



법화경 천일기도
삼천송이의 연꽃을
법계에 공양 올립니다.

※기도비는 병상·의료기 자재구입에 쓰입니다.
CMS(자동이체) · 전화 · 방문접수
농협 815039-55-003185
(정토사관자재회)

천일 愛 행복기도
천일 3분 기도명상으로
나와 세상을 정화합니다.

※기도비는 병상·의료기 자재구입에 쓰입니다.
CMS(자동이체) · 전화 · 방문접수
농협 815039-51-038048
(정토사관자재회)



자제병원 건립추진위원회 사무국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양동리 138-1
TEL. (052)255-8588 FAX. (052)254-2347

자제병원 홍보대사 릴린트 김혜옥

“꺼져가는 생명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일
한 생명 살림등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그대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대의 눈물과 나의 눈물에 담긴 크나큰 아픔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와 나 생명의 가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픔을 모르는 채 할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_ 능행합장



자계병원 홍보대사 딸린트 김혜옥

“한 생명 살림등 밝히기 운동”에 당신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아내는 당신과 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통화” 주시면 모연문을 보내드립니다.

♥1등 : 5만원

♥계좌번호 : 농협 401120-51-017461 (예금주 : 정토마을)

♥신청전화 : 080-255-8588 (수신자부담) | 담당자전화 : 052-255-8588